

지역 소식통

김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6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농축산물의 경우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수산물은 1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6일~ 12일, 13일~ 19일 각 기간별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나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보건소 입구로 방문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상반기 신속집행 절반 달성

완주군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완주군은 3월 말 기준,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액인 2,267억 원의 48.2%에 해당하는 1,093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상반기가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이미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면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올해 초부터 완주군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빠른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해왔다.

조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별 집행 부진사항을 주 1회 점검하고, 공사, 용역, 물품의 조기 발주를 통한 선급과 기성금 지급 등 사업비 집행을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별도 관리하며 만전을 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3종 패키지'로 지원 강화

재직·미취업 청년 수당, 적금 지원도

청년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완주군이 '청년 3종 패키지 지원사업'을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의 3종 패키지인 '도비·군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전북형 청년수당)과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 사업',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뜨거운 호응을 얻어 올해도 이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신청을 마감한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을 위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총 364명이 접수했다. 159명 선정을 선정하는 사업에 2.3배에 달하는 청년들이 몰렸다.



청년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완주군이 '청년 3종 패키지 지원사업'을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수당과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도 인기 속에 92명의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급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에는 모집인원 60의 16배에 육박하는 1,010명의 신청자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청년분야) 공모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 제안 사업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는 것으로 청년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완주군의 청년(18~45세) 인구는 2만 9,571명으로 전체 9만 8,666명의 30%에 달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1일 완주군은 법률사무소 신세계,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돕는다

완주, 법률사무소신세계-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및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완주군은 법률사무소 신세계(대표 나영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과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사망 시 상속과 관련해 법률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대상자 발굴과 한정승인 등 법률비용 등을 지원하고, 법률사무소 신세계에서는 무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법률상담과 소송대

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 연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들의 법률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10월,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 부모 및 상속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북적북적 책 놀이 축제 풍성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 북콘서트, 초등 독서 골든벨 등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에서의 다시 봄~봄~(다시 책 봄, 기억해 봄, 함께 해 봄)'을 주제로 제6회 북적북적 책 놀이 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립도서관은 정부가 제정한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기념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을에 운영했던 책 놀이 축제를 4월로 변경하고, 꽃피는 봄축제로 생동감 있게 추진한다.

이번 책놀이 축제는 시립도서관 실내의 공간에서 다양한 책과 관련된 놀이 체험과 전시 등을 통해 시민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소중함을 불러일으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 행사로는, 1990년 첫 작품 '별치산의 딸'로 등단, 2023년 만해문학상 수상작인 "아버지의 해방 일지"의 정지아 작가와 김제지역 조석중 작가가 이끄는 북콘서트와, 인공지능 감성 로봇인 "리쿠와 함께하는 로봇댄싱 공연" 등이 있다.

도서관 1층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플라마켓과 어린이왕자 책과 연계된 미션 수행 놀이, 올해 새로 선보이는 공동 대 탈출 체험과 다양한 책 전시

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 행사로는 김제시 문인협회의 시낭송과 더불어 가수 휘현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봄의 향연을 느낄 수 있게 식전행사가 시작되며, 솜사탕 공연, 풍선아트 공연, 닭키즈의 댄스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더불어 시민 참여형 자체 발광 "무대를 빌려 드립니다" 코너로 자율적인 공연이 이어지게 구성했다.

또 공립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체험 부스, 3D펜 만들기 체험, 실버 인지 책놀이 체험, 팝아트 등 20개 이상의 체험 활동과 도서관 곳곳을 찾아다니며, 스탬프 찍기로 온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심 역할 수행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시설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기관의 운영방침 및 심도있

는 토의를 통해 방문간호 1개소에 대한 신규지정 심사를 진행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자의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가능

2028년까지 한시적 1통당 600원 발급 수수료 면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일부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했으며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정 시장은 "이러한 장점에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